

坊刻本 簡札教本 研究*

류 준 경**

<目次>

- | | |
|--------------------------|------------------------------------|
| I. 들어가며 | III. 방각본 간찰교본 간행의
문화사적 맥락과 그 의미 |
| II. 방각본 간찰교본의
체제 및 특징 | IV. 나가며 |

<국문 초록>

방각본은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목판본 서적인데, 여타의 간본은 없고 오로지 방각본으로만 간행된 서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찰교본류이다. 방각본으로 간행된 가장 대표적인 간찰교본류 서적은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이다. 『簡式類編』은 1739년에 경아전 출신 이인석이 전겸익이 편찬한 『簡式類編』을 金淨의 『東人例式』으로 증보하여 편찬·간행한 서적이다. 이는 최초의 방각본 간찰교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간찰교본이기에 조선후기의 일반적 편지 작성 양상과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세기 들어 조선적 현실에 적합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는 『寒暄筭錄』, 『簡牘精要』 등과 같은 간찰교본이 간행된 것이다.

『寒暄筭錄』은 18세기 초중반에 간행된, 가장 풍부한 실례를 담고 있는 방각본 간찰교본이다. 특히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

* 이 논문은 200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신여자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newjune@sungshin.ac.kr

다는 점에서, 지방관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簡牘精要』는 1850년경에 최초로 간행되고, 다시 1861년, 1869년에 재차 간행될 정도로 19세기에 크게 성행한 방각본 간찰교본이다. 『簡牘精要』는 『簡式類編』, 『寒暄筭錄』과 달리 套式보다는 구체적인 예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며, 동시에 서울의 도시적 유흥의 분위기를 문화적 배경하는 중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방각본 간찰교본은 실용적인 한문글쓰기 문화를 선도하여 한문문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한문글쓰기 문화의 분화를 반영한다는 점에 그 문화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坊刻本, 簡札教本, 中間層, 簡式類編, 簡牘精要, 寒暄筭錄

I. 들어가며

방각본은 민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목판본 서적을 말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된 방각본 서적은 문예 오락적 성격이 강한 소설 방각본과 교양 실용적 성격이 비소설 방각본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각본 서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소설출판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근래에 들어 방각본에 대한 관심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소설만이 아니라, 방각본 서적 전반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집적되고 있는 것이다.²⁾

1) 완관 방각소설과 경관 방각소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류탁일,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및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이 있다.

2)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pp.57-87.;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pp.229-264.; 이정원, 「안성판 방각본 출판 현황」, 『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pp.161-184.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소설 방각본은 이동용 교과서류, 역사서류, 사전류, 禮書類, 簡札教本類 등이 대부분이다.³⁾ 이 중 이동용 교과서류와 역사서류, 그리고 기본적인 경전류 등은 대부분 官板이나 私家板으로 이미 발간되었던 것을 다시 발간한 것이다. 그런데 몇몇 서적은 오로지 방각본으로만 간행된다. 대표적으로 『史要聚選』, 『簡牘精要』, 『寒暄筭錄』, 『儒胥必知』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서적은 방각본으로만 간행된다는 점에서 방각본의 문화사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따라서 방각본의 특징 및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방각본으로만 간행된 대표적인 서적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방각본으로만 간행된 서적 중 간찰교본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간찰교본은 방각본 서적의 대표적인 출판물일 뿐 아니라, 조선후기 방각본 출판문화가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면모이기에 방각본 간찰교본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⁴⁾

본고에서 주로 검토할 자료는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이다. 『簡式類編』의 경우, 방각본인지 여부가 불투명했는데, 최근에 방각본으로 간행된 서적이 밝혀졌고⁵⁾, 『寒暄筭錄』과 『簡牘精要』는 흔히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각본 서적이다. 이외에 『簡禮彙纂』, 『候事類輯』 등도 방각본으로 간행된 간찰교본이지만, 『簡禮彙纂』은 『簡牘精要』에 부분적인 주석을 첨가하여 간행한 서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候事類輯』은 널리 성행하지는 않았기에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

3) 유근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위의 논문, pp.240-263. 참조.

4) 방각본 간찰교본의 대표적인 예인 『寒暄筭錄』, 『簡牘精要』와 성격이 비슷한, 거의 한문현토수준의 국한문 혼용 간찰교본인 『尺牘大方』, 『尺牘完編』 등이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에 거듭 출판되었다. 『寒暄筭錄』, 『簡牘精要』가 비소설 방각본의 대표적인 출판물이라면, 『尺牘完編』, 『尺牘大方』 등과 같은 국한문혼용 간찰교본은 1920~3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출판물이다.

5) 유근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앞의 논문, pp.234-236. 참조.

要』만을 주요하게 검토할 것이다.

이들 간찰교본에 관해서는 김효경 선생이 한차례 검토한 바 있는데, 조선시대 간찰 서식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⁶⁾ 본고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면서, 이들 서적의 내용적 특징, 작자 및 편찬자, 향유층, 간찰교본 서적의 역사적 흐름 등을 아울러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방각본 서적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

II. 방각본 간찰교본의 체재 및 특징

1. 『簡式類編』

『簡式類編』은 1739년에 편찬 간행된 편지 작성법에 관한 책이다. 중국의 경우 편지 작성에 관한 서적은 일찍부터 존재하였다. 『司馬氏書儀』, 『居家必用事類』 등의 書式에 관한 서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⁷⁾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편지 작성에 관한 서적은 거의 1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寒暄筭錄』, 『簡牘精要』, 『諺簡牘』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모두 방각본으로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18세기 중반에 『簡式類編』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다행히 『簡式類編』에는 서문이 있어, 편찬 및 간행 목적, 편찬자,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柳紘(1678-1756)가 1739년에 작성한 『簡式類編』 서문의 일부이다.

6) 김효경, 「조선시대 간찰 서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박사학위논문, 2005.

7) 이들 서적이 온전한 간찰교본인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례를 수록해 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간찰서식인 것이다. 『司馬氏書儀』의 경우 총10권인데, 권1에 간찰서식이 실려 있고, 『居家必用事類』는 총20권인데 권2에 간찰서식이 실려 있다.

… 李君이 … 이 簡式類編을 간행하여 널리 퍼지게 함이 마땅하다. 이군은 이름이 寅錫이며 자는 天賚인데, 城市를 두루 다니며 詞翰에 뜻을 두었는데, 적막한 구석의 나를 찾아와 소매에서 작은 책자를 보이며 말하였다.

“이 책은 전검익이 편찬한 것으로 명나라 여러 대가의 책독 중에 要語를 뽑고, 아울러 주자의 가례에 나온 弔狀式을 기록하여 분류하여 모았으니 百家의 상세한 부분까지 짐작하여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풍속의 경우에는 혹 큰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사이사이에 沖菴 金淨의 『東人例式』으로 보충하여 상재하려는데, 대방가의 웃음거리를 피할 수 있겠지요?”⁸⁾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簡式類編』은 원래 중국의 牧齋 錢謙益(1582-1664)이 편찬한 것이다.⁹⁾ 그리고 그 내용은 명나라 문인의 편지글에서 주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아울러 『朱子家禮』의 弔狀式을 더한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朝鮮의 李寅錫이 沖庵 金淨의 『東人例式』의 내용을 보충하여 지금의 『簡式類編』을 편찬, 간행한 것이다.

여기서 이인석은 서문에서 “城市를 두루 다니며, 詞翰에 뜻을 둔(混跡城市 遊意詞翰)” 인물이라는 평에서 알 수 있듯이, 여향인 출신이다. 그는 글씨로 이름을 날린 寫字官 출신인 貞谷 李壽長의 아들로 경아전에서 근무하다가 평민인 朴暹과 더불어 冊肆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簡式類編』이 冊肆에서 판매를 위해 간행된 방각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¹⁰⁾

8) 『簡式類編』, “李君之慨然發歎, 迺有此簡式類編之謀其剗剗廣其傳布也. 李君名寅錫字天賚, 混跡城市, 遊意詞翰, 訪余於寂寞之濱, 而袖示一小帙曰 ‘是書也, 錢虞山之所編次, 而採摭皇明諸大家尺牘中要語, 兼錄朱文公弔狀式例家禮中所載集, 而分之類以聚之, 觀酌百家纖悉該乘, 而第於東俗, 或略相有逕庭處, 故間補以我朝金沖菴淨東人例式, 入於椀梓以壽其傳, 而可能免大方之笑也乎”

9) 牧齋 錢謙益이 편찬한 『簡式類編』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牧齋全書』에도 『簡式類編』은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목재의 문집인 『初學集』과 『有學集』에도 『簡式類編』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10) 『簡式類編』을 간행한 이인석이 경아전 출신이며, 평민인 朴暹과 책방을 경영한 점에 대해서는 류준경,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앞의 논문, pp.234-236. 참조.

그런데 이인석은 전검익의 『簡式類編』을 그대로 간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풍속과 차이가 있어서 “사이사이에 沖菴 金淨의 『東人例式』으로 보충”하였던 것이다. 이는 현재의 『簡式類編』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封緘類” 아래에는 “增補○本國沖庵金公淨尺牘例式”라는 夾註가 달려 있어서, 封緘類가 본래의 『簡式類編』에는 없었으나 金淨의 『東人例式』(尺牘例式)으로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봉합류 다음의 具名類의 경우는 “間補例式”이라는 細注가 달려 있어서, 『東人例式』으로 부분적으로 보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어디에도 『東人例式』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簡式類編』은 기본적으로 전검익의 저작을 바탕으로 『東人例式』을 통해 封緘類를 삽입하고, 具名類의 일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실제 봉합류에 “謹再拜 上白是¹¹⁾” 및 “再從兄以上皆用主字[再從兄 이상에는 모두 ‘主[님]’字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이나, 具名類에서 “或白是”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말의 이두식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인예식』의 내용이 첨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김정희의 『동인예식』을 김정희가 35세에 편찬한 최초의 간찰교본으로 파악하고 있다.¹²⁾ 하지만 김정희의 『동인예식』이 편지 작성 방법만을 알려주는 책은 아닌 듯하다. 『동인예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김정희의 연보에서 제주도 유배시의 상황을 서술하는 가운데 “세상에 전해지는 『동인예식』은 선생께서 지으신 것인데, 아마도 당시에 제주에서 가르치기 위한 것인 듯하다.”¹³⁾라고 『동인예식』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 바로 앞에 “제주의 풍속이 淫祀를 숭상하고 禮에 어두워 선생께서 喪禮祭儀를 저술하여 훈도하니 풍속이 크게 변하였고, 섬의 文教가 처음으로 흥하게 되었다.”¹⁴⁾고 하였

11) 上白是 : ‘상살이’라 읽으며, ‘사리어 올립니다.’는 의미이다.

12) 김효경, 앞의 논문, p.40.

13) 金淨, 『沖庵集』(『韓國文集叢刊』 23), 『沖庵先生年譜』, p.232, “世所傳東人例式 卽先生所撰 豈當時教於濟者耶”

14) 金淨, 『沖庵集』, 『沖庵先生年譜』, p.232, “濟州之俗 尙淫祀而矇於禮 先生述喪

다. 따라서 앞 뒤 문맥으로 보건대 『東人例式』은 편지를 포함한 기본적인 의례에 관한 사항을 모은 것이며, 또한 제주도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위해 지어진 책이라 할 것이다.¹⁵⁾ 또한 『동인예식』은 충실한 편지작성 교본은 아니었던 것 같다. 따라서 현재 『동인예식』이 전하지도 않고, 이인석이 『동인예식』이 아닌 『簡式類編』을 중심으로 간찰교본을 간행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로는, 『簡式類編』이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초의 본격적인 간찰교본인 것이다.

이제 『簡式類編』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자. 『簡式類編』의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簡式類編』의 목차에 따른 구성	비고
稱呼類	호칭의 다양한 예
封緘類	皮封用
具名類, 間闊類, 瞻仰類, 即日類, 時令類, 伏惟類, 起居類, 欣喜類, 自敘類, 少稟類, 入事類, 臨書類, 保重類, 結尾類, 祈亮類	往書式
間闊, 瞻仰, 辱承, 審知, 時令, 起居, 欣喜, 自敘, 入事, 因便, 保重, 結尾, 祈亮	答書式
文字類, 彙言類, 宴請類, 賞花類, 饋服用類, 饋器用類, 饋花果類, 饋食物類, 饋禽畜類, 壽誕類, 仕進類, 婚姻類, 誕育類, 薦引類, 託免類, 邀約類, 規戒類, 酬謝類, 借貸類, 交財類, 干助類, 慰問類, 弔狀式, 家庭類, 通候類, 失候類, 回別類, 敘論類, 讚揚類, 羨慕類, 創造類, 裁答類	기본 어휘 및 주제별 예문

처음 呼稱類는 군신, 부자, 형제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를 제시하

葬祭儀以導之 氓俗一變 島中文教之興始此”

15) 『충암집』의 연보는 『충암집』보다 근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간행되었다. 따라서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문맥상으로도 연보작성자가 역시 『동인예식』의 정확한 저작 경위를 알지 못한 듯하다.

고 있다. 封緘類는 『동인예식』에서 따온 것으로 봉투 쓰는 방식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후 具名類부터 祈亮類는 편지를 보낼 때의 흔히 사용되는 套式을 담고 있다. 그리고 往書式의 기량류 다음에 “串成一式”이라 하여 구명류부터 기량류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편의 편지를 제시하고 있다.¹⁶⁾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¹⁷⁾

某年某月某日某生 某姓名拜手(具名) 不獲侍教 已至多日(間闊) 仰德之劇 與日俱深(瞻仰) 比來(即日) 寒威漸減 宇宙皆春(時令) 伏惟(伏惟) 氣候安寧(起居) 伏喜區區無任下誠(欣喜) 某伏蒙下念 僅保形骸 他何伏達(自敘) 茲特愛隆 敢此稟懇(少稟) 適有某事云云(入事) 臨書悚慄之至(臨書) 餘伏祝氣候 益加安寧(保重) 不備(結尾) 伏惟下鑑(祈亮)

모성명이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具名) 받들어 모시지 못한지 이미 여러 날이 되니(間闊) 덕망을 우러르기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瞻仰) 근래에(即日) 차가운 기세가 점차 누그러져 온 세상이 모두 봄이 되었습니다.(時令) 옆드려 생각건대(伏惟) 기체후 안녕하시어(起居) 기쁘게도 저의 구구한 정성을 저버리지 않았나 봅니다.(欣喜) 저는 염려에 힘입어 몸만은 보충하고 있으니 다른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自敘) 이제 자애하심을 믿고서 감히 아뢰옵나니(少稟) 마침 어떤 일이 ~ (구체적 내용서술 부분)~(入事) 편지를 앞에 두니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臨書) 바라옵건대 건강이 더욱 건승하시길 빕니다.(保重) 예를 갖추지 못하오니(結尾) 부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祈亮)

答書式의 경우, 間闊, 瞻仰, 時令, 起居, 欣喜, 自敘, 入事, 保重, 結尾, 祈亮은 왕서식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辱承, 審知, 時令, 因便만 투식을 보이고 있다. 답서식의 경우도 왕서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표현 하나씩을 사용하여 편지 작성의 예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6) 구명류~기량류에 관한 설명은 김효경, 앞의 논문, pp.41-42.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각각의 표현을 연결하여 한편의 편지를 이룬 위의 예문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 한문편지의 투식을 보이는 것이므로, 원문을 먼저 보이고 번역을 뒤에 보이도록 한다.

不獲待教 倏爾逾時(間闊) 此心瞻望 徒切心馳(瞻仰) 計外得伏承下書(辱承) 仍伏審(審知) 新元(時令) 氣候安寧(起居) 伏喜區區無任下誠(欣喜) 某伏承下念 僅得免恙 他何伏達(自敘) 下教某事云云(入事) 今因去便 伏修數字(因便) 餘只伏祝 順時以膺福祉(保重) 不備(結尾) 伏惟下鑑(祈亮) 年月日 具名¹⁸⁾

모시고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間闊) 바라보고픈 이 마음은 다만 간절히 마음으로 내달릴 뿐입니다.(瞻仰) 뜻밖에 내려주신 편지를 받들고서야(辱承) 이에 알게 되었습니다.(審知) 새해에(時令) 기체후 안녕하시다니(起居) 기쁘게도 구구한 정성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欣喜) 저는 염려에 힘입어 탈 없이 있으니 다시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自敘) 하고하시 어떤 일은 ~(구체적 내용서술)~(入事) 이제 돌아가는 편에 몇 글자를 써 보냅니다.(因便) 때에 따라서 복 받으시기를 비웁니다.(保重) 갖추지 못합니다.(結尾) 부디 下鑑하십시오(祈亮). 연월일 누구.

위의 예를 통해 왕서식 및 답서식의 투식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왕서식과 답서식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자.¹⁹⁾ 먼저 문자류에는 간찰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휘를 정리하였고, 휘언류는 喪事, 疾病, 過擧 등 총 22가지 주제에 따라 많이 쓰이는 어구 및 어휘를 정리하였다. 그 뒤로는 주제별로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별 예문은 앞의 투식 구성요소 중 入事類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들이다. 앞의 투식과 이 주제별 예문을 적절히 사용하면 한 편의 편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주제별 예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宴請類는 설날, 七夕, 重陽節 등에 상대방을 청하는 내용이고, 賞花類는 매화, 모란 등의 꽃을 함께 즐기자는 내용이며, 饋服用類는 모자, 옷 등의 의복을, 饋器用類는 거문고, 바둑, 서책 등을, 饋花果類는 꽃이나 열매를, 饋

18) 『簡式類編』에 따르면 보내는 이의 이름을 쓰는 위치가 왕서식과 답서식이 다르다. 왕서식의 경우 앞에 오지만, 답서식은 뒤에 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두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고려 때의 문집에는 이름이 앞에 오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19) 이들은 모두 명나라 문인의 글에서 뽑은 것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食物類는 술이나 고기 등의 음식물을, 饋禽畜類는 말, 소 등을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壽誕類는 생일이나 육순, 칠순 등을 축하하는 내용이며, 仕進類는 會試를 보거나 과거 급제, 등용 등을 축하하는 내용이고, 婚姻類에서는 혼서식과 함께 혼인을 축하하거나 혼인에 초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이고, 誕育類는 아들이나 딸을 낳은 것을 축하하는 내용이며, 薦引類는 醫師, 地師, 卜師 등을 천거하는 것이고, 託浼類는 대신 청탁 넣어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邀約類는 과거응시나 作詩에 친구를 초대하는 것이고, 規戒類는 바둑에 대한 경계를 담은 편지의 예를 싣고 있다. 酬謝類는 선생이나 地師, 醫師 등의 소개를 감사하는 내용을, 借貸類는 서책이나 붓, 먹 등을 빌려주기를 바라는 내용, 交財類는 돈을 빌리는 내용이며, 干助類는 다른 사람의 救濟나 그림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慰問類는 과거 낙방, 被訟, 탄핵, 유배 등을 위문하는 내용이다. 弔狀式은 『朱子家禮』의 弔狀式을 소개하고 있으며, 家庭類는 가족 사이에 보내는 편지이고 通候類는 친구에게 인사하는 편지이며, 失候類는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한 경우에 주고받는 편지의 예이며, 憶別類는 이별한 친구를 그리거나 전송하는 것이며 敘論類는 벗에 관한 의론을 펼친 편지를 담고 있고, 讚揚類는 뛰어난 선비를 찬양하는 것과 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으며, 羨慕類는 다른 사람의 園亭을 부러워하는 내용이며, 創造類는 工師를 천거하는 내용이고, 裁答類에는 편지의 답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을 모아 놓았다. 이상이 『簡式類編』의 주제별 예문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簡式類編』의 편찬자 및 간행과정, 그리고 체제 및 내용적인 면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 다음으로 『寒暄筭錄』에 대해 검토해 보자.

2. 『寒暄筭錄』

『寒暄筭錄』은 5권 3책으로 구성된 간찰교본으로 간본으로는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아울러 전하는데, 목판본과 목활자본의 내용은 동일하다. 서문이나 발문 및 간기가 보이지 않아 편찬자나 간행시기 등이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 규장각 소장 『童觀識錄』에 『寒暄筭錄』 관련 기록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童觀識錄』은 1冊 41張의 筆寫本으로, 서문에 해당하는 글 말미에 ‘四丙辰孟冬 小擊壤老人’이라고 써 있어, 편찬 시기가 崇禎 기원 후 네 번째 병진년인 1856년(철종 7)임을 알 수 있다. 책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편찬자는 楊州 趙氏 가문의 사람으로, ‘小擊壤老人’이라 自號한 인물이다. 이 책은 『喪祭禮抄』,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 『候謝類輯』의 오류를 발췌하고 바로 잡고 있는데, 『寒暄筭錄』의 경우 세 가지 점의 오류를 지적하고 간단한 평을 부기하고 있다. 다음은 『寒暄筭錄』에 대한 간단한 평이다.

이 책은 南氏 姓의 閭巷人이 편집한 것이라고 하는데, 樓閣洞 사람인 河錫은 아버지가 한 것이라 한다. (이 책은 禮書를 참고하는데 부족하여서 禮書에 없는 두 글자를 함부로 첨가하여²⁰⁾, 우리나라의 풍속에서 『朱子家禮』의 본래 모습에 어둡게 하였으니, 이것이 잘못이다.²¹⁾)

이 글에 의하면 이 글이 지어질 당시(1856년 경) 『寒暄筭錄』은 여항인인 南氏에 의해 편집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동시에 小擊壤老人은 종로에 사는 河錫에게서 자기 아버지가 편집한 책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小擊壤老人은 『寒暄筭錄』의 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여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적어 놓고 있는 듯하다.

이상의 기록으로 볼 때, 『寒暄筭錄』은 1856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

20) 앞의 내용을 보면, “‘答用狀’과 ‘答慰狀’은 『朱子家禮』와 『喪禮備要』에 모두 ‘答’이란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 책에서는 모두 ‘答’자를 써넣었다. [答用狀 答慰狀 家禮與備要 皆無答字 而此書皆加答字]”고 하여 『가례』에 없는 ‘答’자를 두 번 써 넣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두 글자는 바로 이 두 개의 ‘答’자를 말한다.

21) 『童觀識錄』, “此書閭巷南姓人所輯云 而樓閣洞人 河錫言 ‘其父所爲’ 恨其疎於考禮 漫添禮書所無之二字 使家禮本面目晦於東俗 是其所失”

기 - 대략 19세기 초중반경에 중간층인 여항인에 의해서 편찬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간찰교본을 부분적으로 증보한 『簡式類編』이 간행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뒤에 우리 식의 간찰교본인 『寒暄筭錄』이 『簡式類編』과 마찬가지로 여항인에 의해서 간행된 것이다.

이제 『寒暄筭錄』의 내용을 살펴보자. 『寒暄筭錄』은 권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重封式	營鎮類, 節下類, 執事類, 開坼類, 上書類
	皮封式	兄主類, 碩士類, 大監類, 尊丈類, 老兄類, 衙門類, 某官類, 台座類, 侍案類, 拜候類, 謹封類, 省禮類
권1	寄狀式	起頭類(十) → 未審類 → 時令類 → 氣候類 → 萬安類 → 伏慕類 → 第類(三) → 仰念類 → 小生類 → 粗安類(九)類 → 就告類 → 饋遺類 → 結語類 → 不備類 → 伏惟類 → 鑑察類 → 上候類 → 年月類 → 姓名類 → 再拜類
권2	答狀式	起頭類(十) → 匪意類 → 襯中類 → 謹審類 → 時令類 → 氣候類 → 萬安類 → 伏慰類 → 第類 → 示意類 → 感荷類 → 辭謝類
권3	주제별 예문	國哀類, 父母喪類, 祖父母喪類, 叔父母喪類, 兄弟喪類, 妻喪類, 子喪類, 子婦喪類, 女喪類, 天憾類, 一家喪類, 親知喪類, 緇禮類
권4	주제별 예문	邦慶類, 重試類, 大科類, 小科類, 發解類, 赴舉類, 落榜類, 生男類, 過婚類, 婚書類, 升擢類, 藩閫類, 邑鎮類, 筮仕類, 復職類, 赴任類, 赴燕類, 補外類, 謫謫類, 宥還類, 罷官類, 解官類, 就理類, 行役類
권5	주제별 예문	問病類, 課做類, 詩什類, 勸勉類, 清趣類, 游賞類, 請邀類, 借與類, 水旱類, 歉荒類, 囑托類

『寒暄筭錄』의 권1은 重封式과 皮封式, 그리고 寄狀式으로 이루어졌다.

22) 『寒暄筭錄』의 권별 목록은 김효경, 앞의 논문, p.45에 정리된 바 있다.

重封은 봉투를 겹으로 만든 것으로, 禮狀처럼 정중히 예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이용되었다. 『寒暄筭錄』의 중봉식은 곧 정중한 예를 갖추어서 봉투 쓰는 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 이어 중봉식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휘를 營鎖類, 節下類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피봉식은 중봉식 외의 편지 봉투 작성 방식을 보이고, 이어서 兄主類부터 謹封類, 省禮類까지 봉투에 쓰이는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기장식이다. 기장식은 한 편의 편지를 작성하는데 흔히 쓰이는 투식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寒暄筭錄』의 기장식은 『簡式類編』의 기장식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簡式類編』의 기장식은 “具名類, 間闊類, 瞻仰類, 卽日類, 時令類, 伏惟類, 起居類, 欣喜類, 自敘類, 少稟類, 入事類, 臨書類, 保重類, 結尾類, 祈亮類”로 총 15가지인데 비해 『寒暄筭錄』의 경우는 “起頭類, 未審類, 時令類, 氣候類, 萬安類, 伏慕類, 第類, 仰念類, 小生類, 粗安類, 就告類, 饋遺類, 結語類, 不備類, 伏惟類, 鑑察類, 上候類, 年月類, 姓名類, 再拜類”로 총 20가지로 나타난다. 『寒暄筭錄』의 경우가 5가지 더 많아 보다 세분화된 듯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상세화하여 투식을 제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중국 명대의 간찰서식과 조선후기 간찰서식의 차이에서 야기된 것인 듯하다. 조선후기 우리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투식과 중국 명대의 투식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이 『簡式類編』이 아닌 『寒暄筭錄』이 다시금 간행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우리식의 한문편지 투식을 확인하기 위해, 『寒暄筭錄』과 함께 가장 널리 유포된 『簡牘精要』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簡牘精要』의 경우, 『寒暄筭錄』에서처럼 편지작성 순서에 따른 구성요소별 투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편의 편지를 여러 편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편지작성법을 보이기에, 조선후기의 우리식 편지 작성의 예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簡牘精要』의 첫머리에 나오

는 새해인사 편지의 예이다. 여기에 『寒暄筭錄』에 제시된 기장식의 투식을 괄호 속에 넣어 보면 다음과 같다.

桃符換舊 句芒報春(起頭) 伏不審(未審)新元(時令) 氣體候(氣候)餞迎萬安(萬安) 伏慕且賀 不任下誠(伏慕) 侍生親節(小生)粗安(粗安) 是爲新年之幸 而未修學業 只添年矢 伏庸悶歎新年 卽擬進謁而緣於事擾尙未遂(就告) 誠下懷伏悵餘 爲探體候康寧(結語) 不備白(不備) 是日(年月)侍生某(姓名) 再拜(再拜)²³⁾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寒暄筭錄』의 기장식의 분류가 정확하게 『簡牘精要』의 예문과 순서와 일치한다. 비록 第類, 仰念類, 饋遺類, 伏惟類, 鑑察類가 빠져 있지만, 이는 내용상 들어가기 어렵거나, 생략 가능하기에 빠진 것이다. 第類와 仰念類는 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니 더욱 당신이 그렇다는 정도의 내용이니, 발신자가 특별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경우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饋遺類는 편지와 함께 물건을 보낼 때 사용되는 투식이고, 伏惟類와 鑑察類는 마지막에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생략 가능한 표현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편지 작성은 『寒暄筭錄』에서 제시한 순서로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具名類의 비교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簡式類編』은 구명류가 서두에 나오지만, 『寒暄筭錄』에서는 구명류가 말미에 나온다. 실제 조선후기 대부분의 편지에서 보내는 자의 이름은 편지의 마지막에 나오기에 『簡式類編』의 방식으로 편지가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簡

23) 번역은 다음과 같다. “지난 입춘첩을 바꾸고, 봄의 神인 句芒이 봄을 알립니다.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체후 편안하십니까. 그리움과 새해의 축하하는 정성을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안하시니 새해의 길운입니다. 그런데 학업을 닦지 아니하고 다만 활처럼 빠른 세월이 나지만 먹으니 저는 어리석게도 새해를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생각건대 곧 찾아가 봐야 하는 데도 일이 어지러워 결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럽고 걱정되는 마음에 기체후 강령하십니까 여쭙습니다. 나머지는 사뢰지 못합니다. 이날 시생 모가 재배하여 올립니다.”

式類編』에 제시된 방식은 실제 조선의 현실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다.²⁴⁾

이제 『寒暄筭錄』의 주제별 예문을 살펴보자. 각 주제별 예문의 주요 내용 및 수록되어 있는 예문의 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순번	목록	내용	예문 갯수	순번	목록	내용	예문 갯수
1	國哀類	국상을 당한 슬픔	8	25	藩閩類	감사 부임 축하 및 답	12
2	父母喪類	부모 상 관련 (조장식)	139	26	邑鎮類	수령 부임(유임) 축하 및 답	43
3	祖父母喪類	조부모 상 관련 (조장식)	6	27	筮仕類	첫 벼슬 축하 및 답	10
4	叔父母喪類	숙부모 상 관련 (조장식)	19	28	復職類	복직 축하 및 답	5
5	兄弟喪類	형제의 상 관련 (조장식)	47	29	赴任類	부임하러 나아감 관련	36
6	妻喪類	아내의 상 관련 (조장식)	31	30	赴燕類	연행 관련	22
7	子喪類	아들의 상 관련 (조장식)	58	31	補外類	지방 수령 좌천 위로 및 답	6
8	子婦喪類	며느리의 상 관련	16	32	謔譏類	유배 위로 및 답	46
9	女喪類	딸과 사위의 상 관련	12	33	宥選類	사면 축하 및 답	27

24) 지금 전하는 많은 간찰들이 모두 『寒暄筭錄』의 방식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 문인들이 틀에 박힌 방식으로 편지를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起頭類” 다음에 “未審類”가 나오는 투식은 조선후기의 많은 간찰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寒暄筭錄』이 조선후기 우리 현실과 밀접한 간찰투식을 제시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순번	목록	내용	예문 갯수	순번	목록	내용	예문 갯수
10	天憾類	자식의 요절	23	34	罷官類	과관 위로 및 답	20
11	一家喪類	일가의 상 관련	35	35	解官類	해관 위로 및 답	19
12	親知喪類	친지의 상 관련	41	36	就理類	의금부에 심리 받는 것 위로 및 답	12
13	緇禮類	면례 관련	8	37	行役類	여행 떠난 자와 주고받는 편지	43
14	邦慶類	나라의 경사 관련	17	38	問病類	병 문안 편지 및 답	37
15	重試類	증시에 합격 축하 및 답	6	39	課做類	과거 공부 관련	19
16	大科類	대과 관련 축하 및 답	30	40	詩什類	시를 보내는 편지 및 답	39
17	小科類	소과 관련 축하 및 답	15	41	勸勉類	권면의 편지 및 답	32
18	發解類	초시 합격 축하 및 답	21	42	清趣類	자연의 흥취 위해 친구 초대	26
19	赴舉類	과거 응시	13	43	游賞類	유람과 관련한 편지	19
20	落榜類	낙방 위로 및 답	12	44	請邀類	초대의 편지 및 답	47
21	生男類	득남 축하 및 답	16	45	借與類	책 등을 빌려주는 내용	15
22	過婚類	혼인 축하 및 답	23	46	水旱類	가뭄과 관련한 내용	12
23	婚書類	혼서식	-	47	歉荒類	흉년에 대한 걱정	23
24	升擢類	등용 축하 및 답	35	48	囑托類	여러 가지 청탁의 내용	68

위의 표를 통해 우리는 『寒暄筭錄』 주제별 예문의 몇 가지 특징적인 면을 알 수 있다. 먼저 상례와 관계된 간찰의 예를 상당히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 왕비, 세자 등의 상을 당해 슬픔을 표현하는 國哀類부터 부모, 조부모, 숙부모, 형제,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 일가친지 그리고 면례에 이르기까지 거의 상과 관련된 모든 예문을 담고 있다. 특히 부모상의 경우 訃音과 弔狀, 이에 대한 答 외에 別紙로 보내는 편지 및 그 답을 48개나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葬禮 後나 小祥, 大祥, 禮祀, 忌祭에 보내는 편지의 예문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처럼 상례와 관계된 풍부한 사례를 담고 있는 것이 『寒暄筭錄』의 특징인데, 이는 상례 관련 서적이 많이 간행되는 조선후기의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면모라 하겠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벼슬과 관련된 예가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가 치르는 시험인 重試 관련 예를 보이는 15 重試類와 24 昇擢類부터 36 就理類까지 총 14개의 주제별 예문은 모두 벼슬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寒暄筭錄』의 주황 유충이 벼슬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는 예라 할 것이다. 특히 26 邑鎭類는 총 43개의 예문을 보여 가장 풍부한 실례를 보이고 있다. 이 43개는 지방 수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 23개와 지방 수령을 留任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 4개, 벼슬을 높여 다른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축하하는 것 8개, 형이나 아들이 外任에 나간 것을 축하하는 것 4개, 그리고 답 4개로 구성되어 지방 수령에게 보내는 편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서 살핀 寄狀式的 第類 1~3 중 그 첫 번째에 지방관으로 나간 자에게 보내는 예 45개와 外任에서 보내는 예 21개 등 총 66개의 예가 수록되어 있으니, 『寒暄筭錄』에서 가장 많은 실례를 보이는 것이 지방 수령과 주고받는 편지임을 알 수 있다.²⁵⁾ 특히 대부분 지방관이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점에서 『寒暄筭

25) 이 외에도 46 水旱類, 47 歉荒類, 48 囑託類도 그 예가 대부분 지방관에게 보내는 것이다.

錄』이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법에 유의하여 편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寒暄筭錄』에 수록된 편지의 예문들은 분량이나 표현에서 많은 편차를 보인다.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표현에서부터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내는 상당한 분량의 내용까지 수록 문장의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사실로 『寒暄筭錄』의 편찬자가 스스로 다양한 간찰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은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문장을 뽑음으로써 실례의 풍부함을 갖추었으나 요령 있는 구성을 이루지는 못하고 번잡함이 두드러지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寒暄筭錄』은 48가지의 세분된 주제별로 풍부한 실례를 제시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상례 관련 예문과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문이 두드러지게 많이 제시되고 있다. 상례 관련 예문의 증가는 조선후기 예에 대한 관심, 특히 『寒暄筭錄』을 향유하는 계층의 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며,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가 풍부하게 제시되는 것은 지방관과 관련을 맺고 있거나, 맺고 싶어 하는 계층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寒暄筭錄』과 함께 가장 유행했던 간찰교본인 『簡牘精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3. 『簡牘精要』

『簡牘精要』는 1권 1책으로 구성된 간찰교본으로 刊本으로는 목판본과 목활자본이 아울러 전한다. 목판본으로는 “由洞新板”과 “己巳暮春武橋新板”의 간기가 있는 두 종류의 경판본과 “辛酉仲秋西溪新板”의 간기가 있는 한 종류의 완판본 등, 모두 세 종류의 有刊記本이 있다. 목활자본의 경우는 刊記가 없다. 『簡牘精要』의 앞부분에는 “本朝國忌”라 하여 조선의 왕과 왕비의 탄생, 즉위, 죽음, 陵號 및 위치 등을 기록해 놓았는데, 由洞 간행본과 西溪 간행본은 철종을 “主上殿下”라 기록하고 있고, 武橋 간행본은 高宗을 “주상전하”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서계 간행본은

1861(辛酉)년 가을에, 무교 간행본은 1869(己巳)년 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1856년(철종7)에 작성된 『童觀識錄』에 『簡牘精要』를 소개하며 “유동신판”이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由洞 간행본은 철종이 즉위한 1849년부터 『童觀識錄』이 작성된 1856년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簡牘精要』는 1850년경에 서울의 由洞에서 최초로 간행된 다음, 전주의 西溪에서 1861년에 재차 간행되고, 그리고 1869년에 武橋에서 또다시 간행되었다. 이처럼 20년이 채 되지 않는 사이에 서울에서 두 차례, 전주에서 한 차례 『簡牘精要』가 간행되었으니, 『簡牘精要』의 인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간기가 존재하지 않는 목활자본까지 간행되고, 나아가 『簡牘精要』에 欄上注만을 첨가한 『簡禮彙纂』이 完山에서 두 차례 간행되었으며, 여기에 『간례취찬』의 無刊記本까지 고려한다면 『簡牘精要』가 19세기말에 얼마나 성행하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簡牘精要』는 1850년경에 처음 간행되어, 19세기말에 크게 성행한 대표적인 간찰교본이라 할 것이다.

이제 『簡牘精要』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簡牘精要』 목록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本朝國忌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誕降, 즉위, 昇遐 년도 및 陵號와 그 위치
時令	1~12월의 月號, 名節, 詩句, 卦象, 律呂, 月建, 躔次, 例套, 풍습 관련 편지의 예, 閏月
주제별 예문	家間往復套, 往復書頭式, 讀書勸勉, 詩詞往復, 文學, 筆法, 容止, 德行, 才藝, 政事, 言語, 是非, 借求, 壽筵請謝, 婚禮, 生子生女賀謝, 饋遺, 薦引, 作別, 憂患, 傷逝, 喪人往復, 科擧, 仕宦內職, 將任, 方伯, 居留, 闕帥, 守令, 臺彈, 謫謫, 宥還, 復職, 邦慶, 國哀, 執事類, 稱念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簡牘精要』는 다른 간찰교본에 비해

간명한 형식으로 구성된다. 있다. 이제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처음에 제시된 “本朝國忌”는 다른 간찰교본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簡牘精要』만의 특징이다. 그런데 『簡牘精要』를 부분적으로 수정한 『簡禮彙纂』에서는 이 본조국기에 왕과 왕비 뿐 아니라, 그 소생까지 모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후대 간행본에서는 본조국기가 생략되기도 한다.

실제 『簡牘精要』가 시작되는 부분은 “時令”부터라 할 수 있다. 간찰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時令부터이기 때문이다.²⁶⁾ 이 시령부분은 『簡牘精要』에서 특히 부각되는 부분으로 전체의 거의 1/3에 달하는 분량을 차지하는데, 一年 12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달에 보내는 편지에 적합한 서두, 그리고 그 달에 있는 풍속과 관련된 편지쓰기의 예를 보이고 있다. 정월의 경우, 초하루, 보름 등의 날짜에 대한 異稱, 정월에 적합한 시구²⁷⁾, 정월과 관련된 易卦, 律呂²⁸⁾, 月建²⁹⁾, 躔次³⁰⁾ 및 정월을 표현하는 다른 예 및 정월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의 예 및 초하루를 함께 보내자는 請 및 그에 대한 답, 새해인사와 그 답, 정월 보름의 초청 및 그 답이 실려 있다. 이러한 구성은 나머지 11달도 동일하다.

그런데 그 달의 풍속과 관련 있는 편지의 예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두의 인사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온전한 한 편의 편지의 예를 모두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편의 편지 전부를 보이는 예는 다른 간찰교본에서 찾기 어렵다. 이는 『簡牘精要』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簡牘精要』은 다른 간찰

26) 時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簡牘精要卷之全”이라는 卷首題가 나타나는 점과, 本朝國忌가 이본에 따라 생략된다는 점에서도 시령에서 『簡牘精要』가 실제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7) 杜甫의 「立春」과 陸游의 「初春」을 예로 들고 있다.

28) 12律을 말한다. 12律은 12월과 짝짓는데, 정월은 12律 중 陽律의 두 번째인 太簇에 해당한다.

29) 달의 간지.

30) 천체의 자리.

교본과 달리 편지의 서두와 말미를 구성하는 투식들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簡式類編』의 間闊類~祈亮類 및 『寒暄筭錄』의 起頭類~再拜類에 해당되는 편지작성의 기본 투식을 따로 정리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簡牘精要』는 이러한 기본 투식을 제시하기 보다는 투식을 포함하는 한편의 편지 전체를 제시함으로써 투식을 익히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簡式類編』이나 『寒暄筭錄』의 투식 정리가 지나치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한 편의 글 속에서 투식을 익히고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면모라 생각된다.

시령에서 풍속과 관련하여 제시된 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절	월	편지의 종류
春	1	元日請 및 답, 新年探候 및 답
	2	撲蝶日請 및 답
	3	上巳請 및 답, 花辰請 및 답, 餞春請 및 답
夏	4	綠陰請 및 답, 八日請 및 답
	5	端午請 및 답
	6	伏日請 및 답
秋	7	七夕請 및 답, 既望請 및 답
	8	仲秋節請 및 답
	9	重陽請 및 답, 楓辰請 및 답
冬	10	雪朝請 및 답
	11	至日請 및 답
	12	除夕請 및 답

그런데 위 표에서 제시된 예 중 신년탐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만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년탐후만 윗사람에게 보내는 尊敬用의 투식으로 작성되고, 나머지는 모두 平交用으로 작성되어 있다. 『簡式類編』

의 경우, 투식의 예를 보일 때 대부분, 존장용, 존경용, 평교용, 비유용으로 나누어 예를 보이고, 『寒暄筭錄』의 경우 『簡式類編』처럼 별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용례와 細注를 통해 尊長用과 卑幼用을 구별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는 『簡牘精要』가 여러 관계에서 주고받는 편지의 예를 다양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의 예를 주로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향유층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서적임을 추정하게 한다.³¹⁾

이제 『簡牘精要』의 주제별 예문의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 검토해 보자. 『簡牘精要』 주제별 예문에 드러나는 주요한 특징은 예문 제시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관련된 지식의 내용
家間往復套	父黨, 母黨, 妻黨 등 三黨의 인물 명칭 및 侍下類의 명칭
往復書頭式	師生, 朋友, 奴婢를 지칭하는 어휘
讀書勸勉	분서경유 후에 경전이 전해진 내력 및 經傳의 별칭
詩詞往復	異體詩의 평측과 한시의 12가지 體式
文學	藝文志 소재 六藝文論
筆法	八體, 六書, 六體, 紙畫墨의 유래, 紙筆硯墨名稱
容止	身體臟腑의名稱
德行	六德과 六行
才藝	六藝의 條目
政事	八政과 五事
是非	道家, 陰陽家, 法家 墨家の 장단점
借求	器用, 服飾, 食物, 人馬의 명칭

31)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항 목	관련된 지식의 내용
壽筵請謝	仙府長生之物의 어휘
婚禮	혼인의 근본, 佳節, 賢媛의 사례, 婚姻 관련 어휘 및 표현, 婚書式
生子生女賀謝	繼後 관련 어휘 및 표현
饋遺	物目 및 물건을 세는 단위
薦引	地師, 卜士, 相士, 畫工 중 有名人
作別	두보의 송별시 2수
憂患	부모, 자신, 아내, 자식, 조카의 병을 칭하는 어휘
傷逝	訃告, 弔狀式, 慰狀式과 別紙의 예
喪人往復	喪禮에서 자신을 칭하는 어휘
科擧	初試, 生進試 지역별 定足數
仕宦內職	관직 및 관청의 異稱
將任	將任의 별칭
方伯	판도 監營의 이칭
居留	四都 留營의 명칭
闕帥	兵營, 水營 및 各營의 명칭
守令	각 고을의 古名과 서울에서의 거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주제와 관련된 어휘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簡牘精要』는 한편으로 백과사전적인 면모를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이 『簡式類編』, 『寒暄筭錄』과 다른 『簡牘精要』만의 독특한 면모이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詩詞往復’에 부연되어 있는 지식의 내용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평측법은 接項簾, 接腰簾, 交股簾, 換尾簾, 開眉簾, 絕腰簾, 吳體簾, 隔句簾, 首尾互, 鎖簾, 新增換, 頭簾의 12가지인데, 이들은 한시 작성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평측이 아니다. 이러한 요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시 작시 수준이 상당해야 한다. 또 이어 제시되고 있는 十二格 곧 疊字格, 先體後用格, 兩重格, 先情後景格, 結上生下格, 中聯互鎖格, 先景後情格, 前開後合格, 句應格, 開合格, 連珠格, 變字格은

아마도 명청대 중국 서적에서 유래한 듯한데, 한시의 다양한 체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책의 저자가 뛰어난 문인적 능력을 갖추었으며, 동시에 이 책의 주요 향유층이 문인층 혹은 문인 지향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往復書頭式에 수록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복서두식의 표현은 대부분 農巖 金昌協과 尤庵 宋時烈的 글에서 선발되는 특징을 보인다. 『簡牘精要』의 왕복서두식에는 왕서와 답서에 각각 13개씩 모두 26개의 문장이 뽑혀 있는데, 이중 11개는 『宋子大全』에서 7개는 『農巖集』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희의 글 1편뿐이다. 그렇다면 『簡牘精要』의 편찬자는 우암의 글과 농암의 글을 집중적으로 참고하여 『簡牘精要』를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簡牘精要』의 편찬자는 노론 계열의 인물이거나, 노론 계열의 영향권에 속하는 인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자료에서 나타나는 문인지향적인 면모를 아울러 고려한다면, 文詞에 관심이 많은 노론 계열 혹은 노론 계열의 문하에 출입하는 사람에 의해 『簡牘精要』가 편찬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보건대, 『簡牘精要』는 1850년경에 편찬 간행되어 지속적인 인기를 누린 책으로, 시령이 강화되고, 투식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다 강조하는 특징을 지닌 방각본 간찰교본이며, 동시에 백과사전적 지식과 문인지향적인 면모와 농암 계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방각본 간찰교본이라 할 것이다.

III. 방각본 간찰교본 간행의 문화사적 맥락과 그 의미

현재 전하는 자료로 보건대, 방각본 간찰교본은 18세기에 전점익이 편찬한 『簡式類編』을 부분적으로 증보하여 처음으로 간행되고, 19세기

들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간찰교본이 집중적으로 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간찰교본이 간행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점에 대해 검토해 보자.

방각본 간찰교본 간행의 목적은 『簡式類編』의 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簡式類編』 서문의 첫 부분이다.

사람은 항상 같이 할 수 없어 반드시 서로 떨어질 때가 있고, 말을 항상 직접 나눌 수 없어 반드시 묻고 답하는 방법이 있다. 몇 마디 말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비추며, 산하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은 곧 한 장의 종이인 편지이니, 진실로 편지가 세교에 보탬이 되며, ①천한 하인이나 미약한 부인네들에게조차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②우리 동방의 문헌에는 증험할 바가 없어서 부화함이 점점 심해져 홀려서 청탁이 되고 아첨하여 뇌물이 되니 호강후가³²⁾ ‘貧’자를 쓰지 않은 것이나 포공에게는³³⁾ 뇌물이 이르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이 아득하여 걸맞는 바가 없으니李君이 이를 개연히 탄식하여 이 簡式類編을 간행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³⁴⁾

서문의 작자인 柳綬는 밑줄 친 ①에서 천한 하인이나 미약한 부인네들에게까지 편지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하인이나 부인네들이 한문편지를 일상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柳綬는 그들조차도 편지를 작성한다는 과장 섞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18세기 중반에 한문 편지가 일반적으로 작성되고 있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편지 작성이 일반화되었다면, 당연히 편지 작성 방법을 안내하

32) 호강후 : 북송 때의 호안국. 청렴하여 평생 동안 ‘貧’字를 말하지 않았음.

33) 포공 : 包拯 송나라의 유명한 판관. 공정하여 죽어서 염라왕이 되었다고 함.

34) 柳綬, 『簡式類編』, “人不能常會而必有離遠之時, 言不能常接而必有問問之節, 方寸相照, 不出數語之間, 山河不隔, 即在一紙上, 則儘乎書尺之有補於世教, 而興儆¹⁾之賤, 娘孺之微, 亦不可一日無者也. 我東方文獻無徵, 浮華漸熾, 流而爲請託, 媚而爲苞苴. 胡康侯之貧字不書, 包閻羅之關節不到, 閱焉無稱, 則宜李君之慨然發歎, 迺有此簡式類編之謀其剗廣其傳布也.”

는 서적이 필요할 터이다. 家學이 면면히 이어지는 사대부가의 경우는 일상적인 문자 행위를 생활 속에서 터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계층은 참고 서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편지의 일상화 속에서 간찰교본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간찰교본의 간행은 단순히 사회적 요구에 응하는 것만은 아니다. 밑줄 친 ②로 보건대, 편지 쓰기의 일상화는 또 다른 한편으로 글쓰기의 범람으로 이어져, 부화함과 아첨, 청탁이 두드러지는 비규범적인, 비도덕적인 글쓰기의 양산이라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제대로, 규범에 맞는 편지 쓰기 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규범에 맞는 글쓰기 방식의 제시라는 계몽적 성격에서 『簡式類編』이 편찬, 간행되었던 것이다.³⁵⁾ 요컨대, 문자생활의 확대에 따른 간찰교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규범적인 글쓰기의 계도라는 계몽적 의도에서 방각본 간찰교본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데 18세기에 간행된 『簡式類編』은 기본적으로 중국 명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며, 동시에 조선 전기에 편찬된 『동인예식』으로 증보한 것이기에 19세기 조선의 현실과는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앞서 『간식유편』과 다른 『한월차록』의 기장식의 투식을 검토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尊卑에 있어서도 19세기 조선의 현실은 『簡式類編』의 예와 거리를 가진다. 조장식에서 『簡式類編』은 尊敬用, 平交用, 降等用의 세 단계에 사용되는 표현을 보이고 있지만, 『寒暄筭錄』과 『簡牘精要』에는 다만 존경용과 강등용의 표현만을 보인다. 『寒暄筭錄』의 경우 상례 관련 내용만을 한 권으로 작성할 만큼 상당한 분량임에도 평교용의 표현을 신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예를 중시하는 조선후기의 분위기 아래에서 弔狀

35) 이 점은 “이 책의 뜻이 일세에 통용되어 쌀을 구하는 글이나 어른에게 올리는 편지가 모두 嫻雅瞻敏하고 꾸밈없이 실질을 따라 비루한 습속을 일거에 씻고, 서책 위에 두고 암송케 한다면 ‘십부 중사[수많은 관리]보다 낫다.’고 일러도 될 것이네.[此書之旨遍於一世 而乞米之帖, 光範之書, 亦皆嫻雅瞻敏, 祛文循實, 一洗陋野之習, 傳作几案之誦, 則雖謂之‘賢於十部從事’, 可也.]”라는 柳綬의 발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 경우 평교를 하는 친구 사이에도 존경용 표현을 사용한 당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³⁶⁾

이와 함께 『동인예식』에서 차용하여 우리식 표현으로 제시된 “上白是”는 조선후기 일반적인 한문편지에는 쓰이지 않는 표현이다. 문서나 諺簡牘, 그리고 하층의 문자에는 사용되지만, 사대부가의 편지에서 “上白是”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³⁷⁾ 따라서 『寒暄筭錄』에는 “상서류”를 모아놓은 곳에 “上白是”를 실지 않았다. 이 역시 19세기 달라진 조선의 현실과 맞지 않는 『簡式類編』의 예인 것이다.

이처럼 『簡式類編』은 곳곳에서 19세기 조선의 현실과 거리를 가진다. 따라서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간찰교본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한 현실에서 조선의 현실에 적합한 새로운 간찰교본의 요구에 부응하여 편찬 간행된 대표적인 간찰교본이 『寒暄筭錄』과 『簡牘精要』인 것이다.

『寒暄筭錄』과 『簡牘精要』는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가장 인기 있는 간찰교본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책들을 비교해 볼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유행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한쪽으로 수렴되지 않고 둘은 자신들의 고유한 인기를 지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寒暄筭錄』과 『簡牘精要』의 영향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체제도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선발된 예문이 겹쳐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표현 정도만 겹칠 뿐이니,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지는 않은 것이 분명하다. 곧 서로 구별되는 문화적 배경에서 이들 서적

36) 이 점은 『簡牘精要』 ‘新年探候’의 答의 細注에서 “근래에는 極恭을 위주로 하여서 비록 아랫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지라도 평교용 서식을 多用한다.[近日則以極恭爲主 雖抵侍生書 多用平交書式]”라는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7) 이 점은 『童觀識錄』에서 “上白是는 俚俗에서 흘러들어 온 것이니 부모와 같은 윗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雅馴하지 않고, 지나치게 구차하여 따라서 덕이 있고 유서 깊은 집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上白是……乃俚俗之流來者 而施之於父母之尊 甚不雅馴 太涉屑越 故故家長德 不用久矣]”라 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이들에게서 또한 약 100년 전에 간행된 『簡式類編』의 직접적인 영향도 확인하기도 어렵다.³⁸⁾ 다만 기장식과 답장식의 투식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비슷한 체제가 『簡式類編』과 『寒暄筭錄』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구성 방식에서 『簡式類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³⁹⁾ 이처럼 서로 영향 관계 없이 독자적인 면모를 지니면서 동시기에 성행했다는 사실은 『寒暄筭錄』과 『簡牘精要』가 각각 나름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간찰교본 판매시장을 양분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간찰교본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지만, 나름의 특징을 바탕으로 당시 수요층의 요구를 대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簡牘精要』와 『寒暄筭錄』의 차이는 무엇일까.

『簡牘精要』와 『寒暄筭錄』에서 가장 쉽게 확인되는 기본적인 차이는 분량이다. 『簡牘精要』는 1책이지만, 『寒暄筭錄』은 3책이다. 따라서 『寒暄筭錄』은 다양한 성격의 예문을 충분히 담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가격의 측면에서는 『簡牘精要』가 보다 경쟁력을 지녔을 것이다.

분량의 차이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외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簡牘精要』와 『寒暄筭錄』은 차이를 보인다. 『寒暄筭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포괄하면서도 관료 특히 지방수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를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는 『寒暄筭錄』의 편찬자 및 잠정적 수요자가 지방 수령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픈 욕망을 지닌 존재임을 보이는 것이다. 한문 편지를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풍부히 수록하면서 동시에 지방 수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를 집중적으로 수록한다는 점은 한문 편지 작성의 초보자를 주요 대상으로

38) 『간독경요』에서 『간식유편』과 비슷한 예문이 발견되기는 한다. 하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어서,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9) 편지의 투식을 정리하는 면모는 『簡式類編』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원나라 때 간행된 『居家必用事類』의 「小簡往式」 및 「小簡復式」에서도 확인된다. (『居家必用事類』, 대만; 中文出版社, 1984, pp.53-59. 참조.)

하면서 동시에 지방 수령 정도의 벼슬을 지닌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계층도 아울러 고려하여 『寒暄筭錄』이 편찬, 간행되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에 비해 『簡牘精要』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寒暄筭錄』은 윗사람, 친구, 아랫사람 등 다양한 사람에게 보내는 다양한 편지의 예를 수록하는데 비해, 『簡牘精要』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의 예를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평교용 편지에서 사용하는 표현인 ‘兄’, ‘弟’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발견되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경우 서울의 도시적 유흥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예컨대, 다음을 보자.

① 오늘을撲蝶의 절기입니다. 옛사람에게 이러한 모임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날인지 막론하고 술이 있으면 좋은 때이며 벗을 맞이하면 좋은 모임입니다. 저에게 마침 박주와 안주가 있으니 급히 오셔서 오늘 아침을 영원케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지요. 비록撲蝶함은 없다하더라도 오늘 이러한 모임이 있으면 또한 박접의 모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⁰⁾

② 오늘 저녁 왕림하지 않으시렵니까. 의금부에서 금지하지 않는 밤에 뜻을 같이하는 네댓 명과 달 아래의 다리를 밟으며 종각의 종소리를 듣고, 또 某邊에서 계수나무 그들의 짙고 열음을 보고 풍년을 짐쳐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풍년이 된다고 한다면 일년동안의 맑은 흥취가 또한 오늘 밤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某兄은 이미 약속을 하지 않고도 만나기로 하였으니 날듯이 오시면 천만 다행일 것입니다.⁴¹⁾

위의 예문은 모임을 청하는 편지인데, 모임이 있기 며칠 전에 미리 편

40) “今日撲蝶之節也 古之人 曾有此會 而我國則曾未聞其作此會也 無論某日 有酒則是名節也 邀朋則是佳會也 弟所適有薄酒殘肴 幸即賁然 以爲永今朝之地如何 雖無撲蝶之舉 當此日有此會 則亦可曰撲蝶之會矣”(『撲蝶日譜』)

41) “今夕不欲枉臨耶 金吾弛禁之夜 若與同志四五人 踏去橋月 聽歸街鐘 且仰看桂影之某邊厚薄 以占穡事之何 道豐登則一年清興 亦無過於此宵矣 某兄已爲不期而會 幸須飛也似惠然千萬”(『上元日譜』)

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일에 보내는 모습을 보인다. 모임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미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당일 계획하고, 당일 편지를 보내는 즉흥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②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종로 거리를 거닐기를 기약하는 모습도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시정의 유흥을 읽어낼 수 있다. 서울의 도시적 유흥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것이다. ①, ②와 같은 예는 『簡牘精要』의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寒暄筭錄』에서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모는 다양한 관계에서 보내는 편지의 예를 싣고 있는 『寒暄筭錄』과 달리 친구들과 주고받는 편지를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簡牘精要』의 특징적인 면모인 것이다. 이상의 사실로 『簡牘精要』와 『寒暄筭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簡牘精要』는 서울의 도시적 유흥의 분위기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계층에 의해 편찬된 서적이며, 동시에 이러한 계층의 수요에 대응한 서적인 것이다.

그런데 『簡式類編』과 『寒暄筭錄』, 『簡牘精要』 모두 그 편찬자는 여항의 인물로 추정된다. 『簡式類編』의 경우는 경아전 출신으로 서점을 경영한 이인석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앞서 밝혔고, 『寒暄筭錄』의 경우 당시 여항인인 남씨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말이 흔히 유포되고 있었음은 『동관지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하였다. 『簡牘精要』 역시 방각본으로 간행되었고, 간찰교본이라는 동일한 성격으로 보건대, 비슷한 계층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이다. 특히 『童觀識錄』에서 『喪祭禮抄』,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 『候事類輯』을 두고 “(이) 다섯 책은 모두 여항에서 나왔다”⁴²⁾고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여항인에 의해 이들 간찰교본이 편집·출판되었다는 점은 실용적인 한문글 쓰기 문화를 선도하는 중간층의 문화적 역량을 확인하게 한다. 곧 중간층인 여항인에 의한 『簡式類編』, 『寒暄筭錄』, 『簡牘精要』의 간행은 확대되어가는 한문 문자생활에 대한 요구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한문 글쓰기

42) 『童觀識錄』, “自禮抄至類輯五書 皆出閭巷 其意皆好”

의 확대인 것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문자생활이 가능한 중간층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문 문화 향유 계층을 선도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寒暄筭錄』은 관료와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한문편지 쓰기의 욕구를 반영하여 폭넓은 한문 문자생활 계층을 포섭하는 면모를 보이고, 『簡牘精要』는 도시적 유흥을 바탕으로 하는 계층의 욕구를 반영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는 중간층 내부의 문화적 분화를 반영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를 확산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간층에 의한 방각본 간찰교본의 간행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한문문자생활에 대한 중간층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를 선도하는 것이며, 나아가 중간층의 문화적 분화까지 포용하면서 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이 방각본 간찰교본 간행의 문화사적 의미라 할 것이다.

IV. 나가며

지금까지 방각본 간찰교본의 특징 및 역사적 변모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簡式類編』은 1739년에 경아전 출신 이인석이 전겸익이 편찬한 『간식유편』을 김정의 『東人例式』으로 증보하여 편찬·간행한 서적이다. 이는 최초의 방각본 간찰교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간찰교본이기에 조선후기의 일반적 편지작성 양상과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19세기 들어 조선적 현실에 적합한,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는 『寒暄筭錄』, 『簡牘精要』 등과 같은 간찰교본이 간행된 것이다.

『한훤차록』은 18세기 초중반에 간행된, 가장 풍부한 실례를 담고 있는 방각본 간찰교본이다. 특히 지방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집중적으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관과의 친분을 유지하려는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간독정요』는 1850년경에 최초로 간행되고, 다시 1861년, 1869년에 재차 간행될 정도로 19세기에 크게 성행한 방각본 간찰교본이다. 『간독정요』는 『간식유편』, 『한훤차록』과 달리 투식보다는 구체적인 예와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며, 동시에 서울의 도시적 유흥의 분위기를 문화적 배경하는 중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면모도 보인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방각본 간찰교본은 실용적인 한문글쓰기 문화를 선도하여 한문문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한문글쓰기 문화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그 문화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는 『簡禮彙纂』, 『候事類輯』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방각본 간찰교본을 검토하지는 못 하였다. 『간례휘찬』, 『후사류집』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검토 및 일제 강점기 간찰교본과의 관련 양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것이다.

<參考 文獻>

- 『寒暄筭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필자 소장본.
 『簡牘精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童觀識錄』,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金 淨, 『冲庵集』, 『韓國文集叢刊』 23, 민족문화추진회, 1988.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 민족문화추진회, 1996.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 109~112, 민족문화추진회, 1993.
 김우균, 『尺牘完編』, 박문사, 1905.
 지송옥, 『尺牘大方』, 신구서림, 1922.
 『居家必用事類』, 대만; 中文出版社, 1984.
- 김효경, 「조선시대 간찰 서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 박사학위논문, 2005.
 류준경, 「달관 방각본 연구」, 『한국문화』 35,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5.
 ———, 「지식의 상업유통과 소설출판」, 『고전문학연구』 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류탁일, 『완관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1.
 이정원, 「안성관 방각본 출판 현황」,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Abstract

*A study on writing-letter guide books published in Chosun Dynasty**
 / Ryu Jun Kyung**

The ‘Bangkakbon(坊刻本)’ is the book published by wood-print for commercial profit. The important cultural meanings of Bangkakbon(坊刻本) publishing is in commercial publishing by common people, for common people. There are two types in Bangkakbon(坊刻本), one is written by Korean, the other is written by classical Chinese. The representative type of Bangkakbon(坊刻本)-books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is the type of write-letter guide books. Especially *Gansikyupyeon* 『簡式類編』, *Hwanhwoncharok* 『寒暄筭錄』, *Gandokjeongyo* 『簡牘精要』 are the most popular books in the late Chosun Dynasty.

Gansikyupyeon 『簡式類編』 was published by Lee In-Seok(李寅錫) in 1739. And that book is a new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of *Gansikyupyeon* 『簡式類編』 written by Jeon Gyeom-Ik 錢謙益. *Hwanhwoncharok* 『寒暄筭錄』 published in the first half of 18th century is the Bangkakbon(坊刻本) write-letter guide book, filled with a great store of letter examples. *Gandokjeongyo* 『簡牘精要』 was published in 1850’s for the first time and in 1861 for the second time and in 1869 for the third time. *Gandokjeongyo* 『簡牘精要』 was so much popular books. The publication of ‘Bangkakbon(坊刻本)’ write-letter guide books has the meanings in cultural history in spread of practical writings in classical Chines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5”

** Professor of Sungshin Women’s Univ. / newjune@sungshin.ac.kr

【Key words】 Bangkakbon坊刻本, write-letter guide books, the middle class, *Gansikyupyeon* 『簡式類編』, *Hwanbwonbarok* 『寒喧筭錄』, *Gandokjeongyo* 『簡牘精要』